문화광장



김 준 기
미술평론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예술의 사회사

부산시립미술관(이하 부시미) 재개관 기념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1945-1953'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전시는 해방공간과 분단,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아카이브형 전시다. 해당 시기별 대표적인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시각문화 아카이브를 펼치고, 동시대 미술가들이 역사를 되짚어 보는 작품들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한다.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 예술의 관점에서 가려진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시는 몇몇 언론에 의해 불온한 좌파적 시각을 펼쳤다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기사들은 '북한의 남침을 빼고 미군정과 반공주의를 비판함으로써 학생들이 찾는 공공미술관이 편향성을 보였다'는 논지를 폈다. 나는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좌우 대립 이데올로기가 예술 영역까지 단죄의 칼날을 드러내는구나 싶어 섬뜩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에 이토록 예민하게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는가? 뿌리는 분단에 있다.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해방을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진정한 독립으로 잇지 못한 참혹한 역사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부시미가 마주하려 했던 역사의 단면들을 이념의 잣대로 비판하는 시각에 아픈 역사가 더욱 심난하게 다가온다. 압제에서 벗어났으되 분단을 맞았고, 1948년 남북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친 한반도는 갈라져 총을 겨눈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이를 작품과 자료로 담담하게 펼친 전시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참담하다. 이 전시는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사건이다. 그동안 미술계가 미술 내재적 관점으로 되돌이표 같은 해석을 반복해 온 일을 반성할 일이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같은 저서를 접하며 예술과 사회의 상동성을 논하는 것은 서구만의 관점인가? 이제 우리도 분단체제의 고통을 바라보던 외눈박이 시선을 벗어나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예술의 사회사'를 대면할 때다.

올 한 해에도 제주 4·3과 광주 5·18, 대구 10·1, 부마 10·16, 여순 10·19 등 현대사를 기억하는 예술제가 열렸다. 재야 곳곳에서 역사 정명을 향한 예술인들의 용맹정진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부시미의 전시는 이러한 흐름과 함께 역사적 관점의 정상화 과정에 놓여 있다. 공공영역의 역사 관련 연구와 전시 역량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소 냉전이 남긴 이념 대립의 칼날을 80년 넘게 대물림하는 슬픈 역사를 펼쳐 놓고, 예술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대면하게 했다. 지금까지 금기나 불온의 영역에 머물렀던 한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되돌아보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술문화의 맥락을 짚어 내는 성숙한 예술문화를 향한 길. 부산에서 울려 퍼지는 잔잔한 파동이다.

열린마당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쓰레기통 설치·관리 필요



한 승 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서귀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요즘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 수학여행을 온 학생과 국내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감귤모찌, 흑돼지 꼬치구이 등 향토 음식과 야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시장 내부와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테이크아웃 잔과 일회용 용기, 꼬치 막대 등이 상가 구석이나 가게 앞, 공공 화장실에 무단으로 버려진다. 관광객이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쓰레기 좀 버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상인들은 난감하다.

공공근로 인력이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무단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시장 입구에 재활용도움센터가 있으나 관광객 동선과 거리가 있어 상인들의 배출 공간으로 활용된다.

문제를 시민의식 결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쓰레기통 설치를 배제하기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시장 출입구와 주요 거점에 분리배출용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의 집중 관리도 고려할 수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상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것이다.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 지사 "BRT 도민 의견 폭넓게 수렴"

2일 월간정책회의서 강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정책 방향 결정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버스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

제주도는 2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제4회 월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위 지사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양 행정시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정책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며 버스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용역의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 오소범기자

돌봄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서귀포시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슈퍼바이저'를 운영.

'현장슈퍼바이저'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무교육·지도 등을 통해 올해 슈퍼비전 52회(직원 39, 지역단체 13)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요령과 상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

시 관계자는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사설

악화일로 제주관광, 항공권 확보는 공염불

제주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관광객 감소의 주된 원인이 항공권 감소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0월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122만3100명으로 지난해보다 9.3% 감소했다. 내국인은 99만4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9%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23만2700명으로 10.0%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3월까지만 해도 증가세였지만 5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누계는 948만9200명으로 지난해보다 0.8%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 누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권 감소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항공요금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 기준 편도 2만900원으로, 4월보다 3.8배 올랐다. 또 제주 국내선 항공 좌석은 지난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심화는 제주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위축을 초래한다. 관광산업 위축은 결국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타격을 주게 된다. 항공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제주도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증가는커녕 갈수록 더 감소하고 있다. 말로가 아닌 성과로 답을 해야 한다.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홀대' 반복 안 된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역 산업과 밀접한 6개 핵심 기관을 목표로 삼고 범도민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위성곤 제주도정의 향후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제주 미래 신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차대한 시험대다.

제주가 내세우는 유치 논리는 명확하고 정당하다. 말산업 전문 인력과 기반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적된 제주는 한국마사회의 최적지이며, 전국 최대 항공수요를 안고 미래 항공 정책을 선도할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알짜 기관을 두고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대거 경쟁에 뛰어들면서 격전이 예고된 상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제주는 혁신도시 인구 유입 미달과 지역 인재 채용 저조라는 고배를 마셨고, 최근까지도 주요 국제 행사 유치 과정에서 '지역 홀대론'과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이전이 또다시 정치적 논리나 힘의 균형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제주는 또 한 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대한민국 제1호 특별자치도'의 상징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주도민과 도정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번만큼은 절대로 헛물을 켜는 일이 없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에이치엔아이솔라, 에스에이치태양광발전소, 아이엔에이치솔라, 허스솔라, 하이솔라
- 위치 : 에이치엔아이솔라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80-1(총13,136㎡ 중9,172㎡)
에스에이치태양광발전소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80-1(총13,136㎡ 중3,964㎡)
아이엔에이치솔라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80-8(총24,064㎡ 중17,108㎡)
허스솔라 발전소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80-8(총24,064㎡ 중3,561㎡)
하이솔라 발전소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80-8(총24,064㎡ 중3,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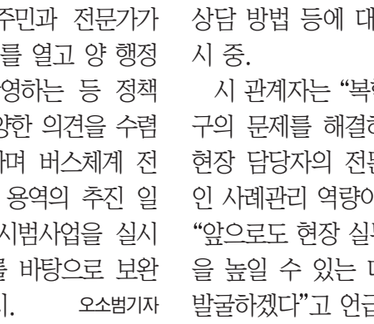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별 설비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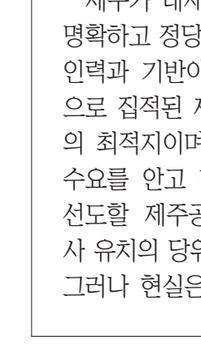
발전소명	설비용량	허가신청자
에이치엔아이솔라	999.7kW	㈜에이치엔아이솔라
에스에이치태양광발전소	326.3kW	김성환
아이엔에이치솔라	2259.4kW	㈜에이치엔아이솔라
허스솔라발전소	360.1kW	김용만, 허영순
하이솔라발전소	360.1kW	이덕기, 하미숙
합 계	4,305.6W	

* 준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예정일 : 2027년 5월 * 한전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10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서면작성하여 E-MAIL (mrsp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용산6호태양광발전소, 한남덕수태양광발전소
- 위치 : 용산6호태양광발전소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82, 105, 107, 109, 139 (총18,337㎡ 중18,337㎡)
한남덕수태양광발전소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86, 88, 97, 101 (총16,383㎡ 중12,000㎡)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별 설비용량

발전소명	설비용량	허가신청자
용산6호태양광발전소	2,499.9kW	박현미
한남덕수태양광발전소	1,700.4kW	한남전력㈜
합 계	4,200.3W	

* 준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예정일 : 2027년 5월
* 한전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10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서면작성하여 E-MAIL (mrsp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